

‘지방분권’ 총·대선 공약화 나섰다

내달 1일 여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교육, 국·지방세 조정 촉구

국회 분권특위 설치·자주재정권 확보 요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들이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확대에 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지방살리기’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다음달 1일 여수에서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3할 자치’ 해소,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

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는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국세·지방세 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국회에 상정됐음에도, 그동안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성명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에도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 ▲국세·지방세 조정 ▲자주과세권 확대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아울러 지난해 8월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안 지사는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는 소외된 채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광주·전남·전북 등 영·호남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뤄진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도 31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호남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치의 계절 실감나네

지난 28일 나란히 무등산을 찾은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왼쪽)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지자 수백명과 함께 각각 산에 오르고 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장봉재 쉼터에서 조우해 인사를 나눴다. ▶인터뷰 5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번주 공심위 구성 與野 총선체제 돌입

역대최대 폭 물갈이 예고속 지역정치권 경선룰 등 촉각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개혁 공천을 기치로 역대 최대 폭의 물갈이를 단행할 태세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중앙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우선, 한나라당은 15년간 유지해 온 당 명을 30일 공식 교체하고 급주 중에 공심위를 구성, 3월 초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심위는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을 기본으로 총 11~13명 규모로 구성되며, 외

부인사가 공심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심위원장 후보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정중섭 서울대 법대학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대표,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25% 교체를 위한 여론조사는 다음달 20일 전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번 주 내에 공심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공천 및 당내 경선기준 마련에 나선다. 공심위는 내·외부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심위원장은 당내 인사가 맡을 가능성과 함께 개혁공천의 취지를 살려 명망 있고 참신한 외부인사가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심위원장 후보로는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입체전 국회의장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총선 지형은 좀처럼 안개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들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종 설만 난무하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컷-오프와 관련,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연합도 조사에서 지역 평균에 못 미치고 부정

부패 등에 관련되거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가능성과 함께 모바일 투표 및 여론조사와 시민선거인단의 복합형 경선 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예비 후보들은 지지층 모으기에 사활을 걸면서 중앙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심위 출범을 앞두고 이번주에 중앙당 실사단을 파견,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등 기초 자료 수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PHILLIAN 제1기 수강생 모집

2012년 3월 최고지도자를 위한 인문학의 향연이 열립니다.

강의 구성 및 운영

- ▶ 강의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인문학 관련 모든 분야
- ▶ 수강기간은 1년, 총 30회, 주 1회(수요일 저녁) 2시간으로 구성
- ▶ 본 과정은 최고 전문가의 특강과 토론, 그리고 답사와 체험으로 구성
- ▶ 해외 학술문화기행 1회, 국내 학술문화기행 2회, 문화예술체험
- ▶ 강사진은 학술원 회원, 국내외 석학, 문화·예술계 명사로 구성

입학안내

모집인원
40명 내외

입학자격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
- 정부 각 기관의 고급 공무원
- 법조, 교육, 언론, 의료, 금융 등 전문직 고위 간부
- 장성 또는 고급 장교
- 사회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지도급 인사
- 본 대학이 본 과정의 수강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1부
- 반명함판 사진(3X4cm) 2매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2012년 1월 27일(금) - 2월 17일(금) 18:00
-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1호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사무국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발표: 2012년 2월 22일(수) 개별 통지
- 등록기간: 2012년 2월 23일(목) - 3월 2일(금)

연락처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1호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사무국
- 전화: 062) 530-4080
- 팩스: 062) 530-4078
- 메일: jnuphillian@naver.com